



타임트랙



금빛 훈련 본격 시동 광저우아시안게임 여자체조대표팀이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11일 아시안게임 타운 체육관에서 훈련하고 있다.

광저우(중국) | 연합뉴스

만리장성 넘은 男 탁구, 온 국민이 열광

타임트랙 | 한국 첫 개최, 1986년 서울AG엔 무슨일이?

중국 선수단 첫 방문 등 27개국 참가
수영 최윤희 대회신...체조 첫 금 3개
남녀 탁구 잇달아 중국 꺾으며 파란
한국, 금 93개 등 사상 첫 종합 2위

한국인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아시안게임은 아무래도 1986년 서울에서 열린 제 10회 대회일 것이다. 2010년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맞아, 16년 전 한국에서 처음 개최된 아시안게임을 추억해본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서울 아시안게임

한국은 1986년 이전에 아시안게임을 개최할 기회가 있었다. 1970년 제6회 아시안게임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후진국. 아시안게임을 개최할 만한 돈이 없었다. 재정문제로 대회 개최를 반납했고, 태국 방콕이 이 대회를 열게 됐다.

1970년대 성장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한국은 1981년 11월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경기연맹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 10회 아시안게임을 서울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약 2개월 전인 9월 30일, 1988년 제

24회 올림픽을 서울로 유치한 데 이은 쾌거였다. 서울 아시안게임에는 당시 미수교국이었던 중국(현 중국) 선수단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등 27개국 4836명의 임원과 선수들이 몰려들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금메달 93개, 은메달 55개, 동메달 76개로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으로 종합 2위에 오르는 성과를 올렸다. 중국(금메달 94개)에 불과한 금메달 1개차로 뒤졌으며,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단 한번도 이기지 못했던 일본(금메달 58개)을 금메달 35개차로 따돌렸다.

●국민의 심금을 울린 스타들

대회 이틀째까지 금메달 없이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에 그쳤던 한국은 3일째인 9월 22일 사격에서 무려 4개의 금메달을 휩쓸며 금메달레이스에 불을 붙였다. 여자부 박경아가 2관왕에 올랐고, 남자부 차영철도 2관왕의 영예를 누렸다. 그리고 이 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수영 스타 최윤희가 이날 배영 100m에서 1분04초62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최윤희는 26일 배영 200m에서 금메달을 따내 2관왕에 오르면서 대회 초반 최고의 스타로 우뚝섰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은 한국의 사실상 첫 국제종합대회 유치로, 성적과 흥행 양쪽에서 내부적 자신감과 외부적 호평을 동시에 얻은 성공작이었다. 탁구 여자복식의 현정화(왼쪽)-양영자조는 중국의 아성을 뚫고, 육상의 임춘애(아래 사진)는 최고 스타로 떠올랐다. 스포츠동아DB

의 스타로 우뚝섰다.

24일에는 체조가 사상 최초로 금메달 3개(권순성 서연희 서선영)를 획득한 가운데 남자 탁구팀이 단체전에서 5시간 18분간의 혈전을 치른 끝에 중국을 5-4로 물리치고 사실상 금메달을 예약했다. 안재형이 마지막 매시를 성공한 뒤 바닥에 드러누워 만세를 불렀고, 만리장성을 넘어선 순간을 TV로 지켜보던 국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감격해했다.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하루 뒤 현정화 이선 김영미 양영자로 팀을 꾸린 여자 탁구가 단체전에서 중국을 2-1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안재형 김완 박창익 박지현 유남규의 남자 탁구팀도 단체전 결승에서 홍콩을 5-2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대회 11일째인 30일 양궁에서만 7개의 금메달을 사냥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무려 12개의 금메달을 쓸어들마아 마침내 경쟁국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양궁은 이 대회 12개 종목 중 9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이날 여자 육상 800m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스타덤에 오른 임춘애는 이후 1500m와 3000m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육상 사상 최초로 아시안게임 3관왕에 올랐다. 남자 2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장재근과 함께 한국 육상에 희망을 던져줬다.

한국은 대회 폐막 하루 전날인 10월 4일 북상 12체급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내는 등 이날 하루에만 19개의 금메달을 무더기로 주워담았다.

대회 최종일에 금메달을 따낸 축구, 세계 최강 파키스탄과 인도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차지한 남녀하키, 8체급 중 6체급을 석권해 중국주 일본을 깜짝 놀라게 한 유도 역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나후 중국으로 평가받던 육상과 체조에서도 각각 7개와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한국 스포츠사의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가장 선수단 숫자가 많은 종목은 남자 29명, 여자 15명에 9명의 코치가 동행한 육상(총 53명). 그 다음이 남자 26명·여자17명·코치9명이 팀을 이룬 사격이다.

반대로 최소 인원을 내보낸 종목은 수중발레. 선수 두 명에 코치 한 명이 전부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편집 | 김남은 기자 kne81@donga.com

휴~, KCC 4연패 끊고 AG 휴식

92-86으로 인삼공사 누르고 공동 6위



전주 KCC가 안양 인삼공사를 물리치고 4연패에서 탈출했다.

KCC는 11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0~2011 현대 모비스 프로농구' 원정경기에서 용병 센터 크리스 다니엘스를 앞세워 인삼공사에 92-86으로 승리했다. 센터 하승진의 대표 차출과 가드 전태풍의 부상 결장으로 힘겨운 초반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KC는 1쿼터 34-15의 압도적 리드를 경기 끝까지 지켰다. 다니엘스는 20득점-10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작성했다. 이로써 시즌 5승7패가 된 KCC는 창원 LG와 공동 6위로 아시안게임 브레이크를 맞게 됐다. 반면 인삼공사는 3연패에 빠졌다. 2승 10패로 다시 최하위로 처졌다.

남자농구는 12일부터 27일까지 아시안게임에 따른 휴식기에 들어간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김승현, 사실상 선수생명 박탈

KBL 재정위원회 '임의탈퇴' 중징계



소속팀 오리온스와 이면계약에 얽힌 연봉 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승현(사진)이 '임의탈퇴'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한국농구연맹(KBL)은 11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라 보수조정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지정된 보수 이외의 금전 및 대가를 요구한 김승현을 임의탈퇴 선수로 공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1일 제15기 2차 이사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선수가 KBL의 보수조정 결정에 불복 시 KBL은 해당 선수를 임의탈퇴로 공식하게 돼 있다.

선수가 임의탈퇴로 공식되면 타 구단의 영입은 불가능해진다. 또 선수계약 또한 정지된다. 유효기한은 무기한이다. 사실상 선수생명을 무기한 박탈하는 최상위 징계다. 구단이 임의탈퇴 철회를 요청하더라도 KBL의 승인을 받아야 임의탈퇴가 풀린다. 또 복귀는 해당 구단으로부터 가능하다.

KBL 재정위원회는 중징계와는 별도로 김승현의 선수생명 과 장래를 생각해 인사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LG, 미국 트리플A 출신 투수 주키치와 계약

LG는 11일 새 외국인투수 벤자민 주키치(28)와 계약금 2만 달러, 연봉 2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미국 출신으로 키 192cm, 몸무게 95kg의 좌완투수다. 올시즌 트리플A에서 29경기에 출전해 7승4패 방어율 3.90을 기록했으며, 마이너리그 통산 127경기에 등판해 41승23패 방어율 3.93을 기록했다. 11일 LG 마무리훈련지인 미국 플로리다 캠프에 합류해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본사손님 (11일)

▲ 양승호 롯데 자이언츠 신임 감독, 배재후 단장과 함께 신임 인사차 방문.

▲ 정해성 전남 드래곤즈 신임 감독, 김영훈 단장과 함께 신임 인사차 방문.

경기종합

경기 결과(11일)

축구 ●제 16회 광저우 하계 아시안경기대회(중국 광저우)
●남자부 E조=홍콩(2승1무) 4-1 방글라데시(3패), UAE(2승1무) 3-0 오즈 베키스탄(1승2패) ●남자부 E조 최종 순위=① UAE(7점, 16강 진출), ② 홍콩(7점, 16강 진출), ③ 우즈베키스탄(3점), ④ 방글라데시(0점)

농구 ●2010 대학농구리그(수원)
●전국대(11승9패) 90-77 성균관대(대전한밭), 강릉-수원(강릉종합, 이상 오후7시)
●중앙대(19승), ② 경희대(17승2패), ③ 연세대(15승5패)

아이스하키 ●제 65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목동아이싱링크)
●B조=하이원(2승) 5-1 연세대(1승1패)

펜싱 ●2010 세계 펜싱 선수권대회(프랑스 파리)
●플리레 여자부 단체전 3위, 4위 결정전=한국(동메달) 45-42 독일

양궁 ●2011년 국가대표 3차 선발전(대전)
●남자부 최종 순위=① 김주완(대전체고), ② 진재영(계명대), ③ 김성훈(한체대), ④ 구동환(서울시청) ●여자부 최종 순위=① 장혜진(LH), ② 한경희(순천여고), ③ 최현주(창원시청), ④ 정다소미(경희대)

경기예고

오늘의 경기(12일)

축구 ●2010 내셔널리그
●플레이오프=대전-고양(대전한밭), 강릉-수원(강릉종합, 이상 오후7시)

농구 ●2010 대학농구리그(안성, 오후5시)
●중앙대-경희대

테니스 ●제 21회 전국 대학 테니스선수권대회(영광군 스포티움 테니스코트)

골프 ●KPGA 2010 하나투어 챔피언십(용평버치힐G.C.)

탁구 ●2010 프로투어 폴란드 오픈(폴란드 바르샤바)

아이스하키 ●제 65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목동아이싱링크)
●준결승전=안양한라-연세대(오후1시30분), 하이원-한양대(오후4시30분)

전도 ●제 27회 추계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경기도 부천, 오후3시)

펜싱 ●2010 세계 펜싱 선수권대회(프랑스 파리)

KBL 남자프로농구

(11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전차랜드	11	9	2	0.818	-	4승
2	삼성	12	9	3	0.750	0.5	1승
3	KT	12	8	4	0.667	1.5	2승
4	동부	11	7	4	0.636	2	2승
5	SK	12	7	5	0.583	2.5	1패
6	LG	12	5	7	0.417	4.5	1승
7	KCC	12	5	7	0.417	4.5	1승
8	오리온스	11	4	7	0.364	5	1패
9	모비스	11	2	9	0.182	7	5패
10	인삼공사	12	2	10	0.167	7.5	3패

●무문벌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① 헤인즈	삼성	27.8	① 강혁	삼성	6.1
② 레더	SK	22.4	② 주희전	SK	5.2
③ 문대영	LG	21.1	③ 전태풍	KCC	5.1
④ 맥기온	오리온스	19.3	④ 박지현	동부	4.4
⑤ 사이먼	인삼공사	19.3	⑤ 김중준	모비스	3.9

경기결과

인삼공사	86	40	15-34	57	92	KCC
		46	25-23	35		
			20-14			
			26-21			

WKBL 여자프로농구

(11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삼성생명	8	8	0	1.000	-	8승
2	신한은행	8	6	2	0.750	2	2승
3	kdb생명	7	3	4	0.429	4.5	1승
4	신세계	8	3	5	0.375	5	1패
5	국민은행	9	3	6	0.333	5.5	5패
6	우리은행	8	1	7	0.125	7	2패

●무문벌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① 이종애	삼성생명	19.1	① 이미선	삼성생명	7.4
② 로벌스	삼성생명	18.8	② 전주원	신한은행	7.0
③ 김단비	신한은행	17.6	③ 김지후	신세계	5.8
④ 변연하	국민은행	16.6	④ 변연하	국민은행	5.0
⑤ 이연화	신한은행	15.9	⑤ 로벌스	삼성생명	4.8

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NBA

(11일)

●팀순위

순위 대서양지구				순위 중부지구				순위 남동지구			
	승	패		승	패	승	패	승	패		
1	보스턴	6	2	1	시카고	3	3	1	올랜도	5	2
2	뉴저지	3	5	1	클리블랜드	4	4	2	애틀랜타	6	3
2	뉴욕	3	5	1	인디애나	3	3	3	마이애미	5	3
4	필라델피아	2	6	4	밀워키	4	5	4	워싱턴	2	4
5	토론토	1	7	5	디트로이트	2	6	5	샬럿	2	6

●경기결과

순위	북서지구	승	패	순위	대평양지구	승	패	순위	남서지구	승	패
1	포틀랜드	6	3	1	LAL	8	0	1	뉴올리언스	7	0
2	유타	5	3	2	골든스테이트	6	2	2	샌안토니오	6	1
3	오클라호마	4	3	3	세크라멘토	3	4	3	밀워키	5	2
4	덴버	4	4	3	피닉스	3	4	4	멤피스	4	5
5	미네소타	2	7	5	LAC	1	8	5	휴스턴	1	6

●경기결과

밀워키	108-91	애틀랜타	뉴저지	95-87	클리블랜드	골든스테이트	122-117	뉴욕
유타	104-94	올랜도	미네소타	98-89	세크라멘토	샌안토니오	107-95	LAC
오클라호마	109-103	필라델피아	워싱턴	98-91	휴스턴	샬럿	101-96	토론토
로스앤젤레스	106-91	멤피스						

NHL

(11일)

●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서부 콘퍼런스												
순위	팀명	승	패	OT	순위	팀명	승	패	OT	순위	팀명	승	패	OT	P		
1	필라델피아	9	4	2	20	1	몬트리올	9	5	1	19	1	워싱턴	11	4	0	22
2	뉴욕	7	7	1	15	2	보스턴	8	3	1	17	2	필라델피아	8	4	2	18
3	피츠버그	7	8	1	15	2	오타와	8	6	1	17	3	캐롤라이나	8	7	0	16
4	뉴욕	4	9	2	10	4	토론토	5	7	3	13	4	애틀랜타	6	6	3	15
4	뉴저지	4	10	2	10	5	버펄로	5	9	2	12	5	플로리다	6	7	0	12

●경기결과

순위	중부지구	승	패	OT	P	순위	북서지구	승	패	OT	P	순위	대평양지구	승	패	OT	P
1	SL 루이스	9	2	2	20	1	밴쿠버	8	4	2	18	1	LA	10	3	0	20
2	디트로이트	9	3	1	19	2	미네소타	7	4	2	16	2	헤너하이	9	7	1	19
3	콜럼비아	9	5	0	18	3	캘리포니아	7	6	1	15	3	캘리포니아	8	5	0	16
4	시카고	8	9	1	17	4	캘리포니아	7	7	0	14	4	캘리포니아	5	5	5	15
5	세인트루이스	5	5	3	13	5	에드먼턴	4	7	2	10	5	세인트루이스	6	5	2	14

●경기결과

버펄로	5-4	뉴저지	보스턴	7-4	피츠버그	콜럼비아	8-1	SL 루이스
플로리다	4-1	토론토	피닉스	2-1	시카고	애너하임	1-0	뉴욕

NFL

(11일)

●팀순위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북부지구				승	패	순위 남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뉴욕	6	2	1	필라모어	6	2	1	데일리	5	3	1	캔자스시티	5	3								
2	뉴잉글랜드	6	2	1	피츠버그	6	2	1	인디애나폴리스	5	3	2	오올리버	5	4								
3	마이애미	4	4	3	클리블랜드	3	5	3	휴스턴	4	4	3	샌디에이고	4	5								
4	버펄로	0	8	4	신시내티	2	6	3	잭슨빌	4	4	4	덴버	2	6								

●경기결과

1	뉴욕G	6	2	1	그린베이	6	3	1	애틀랜타	6	2	1	St. 루이스	4	4
2	필라델피아	5	3	2	시카고	5	3	2	뉴올리언스	6	3	1	시애틀	4	4
3	워싱턴	4	4	3	미네소타	3	5	3	덴버파이	5	3	3	애리조나	3	5
4	델리스	1	7	4	디트로이트	2	6	4	캐롤라이나	1	7	4	샌프란시스코	2	6